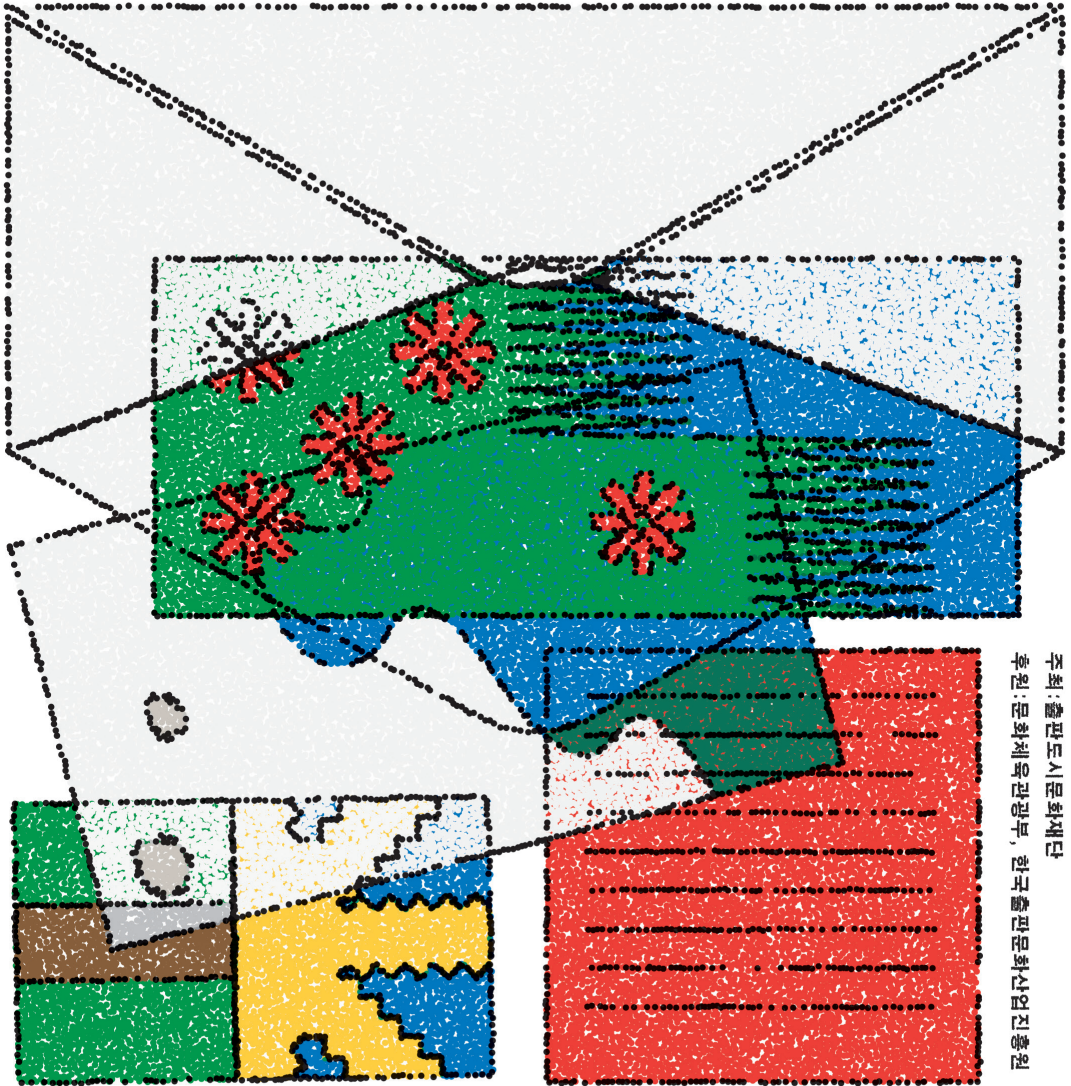


# 기 록 에 게



주최: 출판도시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2 출판도시 인문학당  
[www.inmunclub.org](http://www.inmunclub.org)

문  
보  
영

시를 쓴다. 시를 쓰다 보면 처음에 하고자 했던 말에서 아주 멀어져서는 아무것도 아닌 말이 되어버린다. 할 말은 휘발되고 축축한 바닥에 남겨진 바퀴자국이 된다. 그리고 애초에 하려던 말을 모두 잊어버린다. 그리고 그게 정말 좋다.  
쓴 책으로 시집 『책기둥』, 산문집 『일기시대』 등이 있다.

1

「일기 딜리버리 우편 원고  
<내 방에서 탈출하기>」

일기를 봉투에 넣어 독자분들에게 보낸다. 이 일기는 재작년에 보낸 원고 <내 방에서 탈출하기>이다.



2

「실패한 미니 소설 원고(초고)」

이야기를 만들다가 실패한 과정의 기록. 우연히 마주친 단어들을 이용해 이야기를 만들었다. 보다시피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우며 어지럽다.

3

「필사노트」

소설을 필사하는 것을 좋아한다. 필사하다가 낙서를 하기도 하고, 공부할 단어를 노트 가장자리에 적기도 한다.



박  
지  
수

<월간사진>, <VON>, <포토닷>을 거쳐 현재 <보스토크>까지 줄곧 사진 잡지에서 마감에 시달리며, 사진과 글을 고르고 다듬는 일을 해오고 있다.

4

「멈추고 바라보고 기록하는 일 - 팬데믹 다이어리」

더 이상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이 멈춰버린 이 시절에 사진처럼 멈추고 바라보는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겪어온 팬데믹 시대의 하루하루를 사진으로 살펴보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 우리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원고 <내 방에서 탈출하기>이다.

5

「가장 빛나는 한때와 마지막 포즈를 기억하는 일 - 에프터 유스」

사진은 언제나 '젊음과 늙음'이라는 주제를 관심 있게 다뤄왔고, 사람들 또한 사진 안에 담긴 '젊음과 늙음'을 탐내고 궁금해 합니다. 사진도 사람도 가장 빛나는 한때를 놓치고 싶지 않고, 생의 마지막 포즈에 미련을 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진은 우리의 생애주기마다 깃들고, 우리는 그 사진을 닦아갑니다.

6

「숨죽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 - 나는 당신의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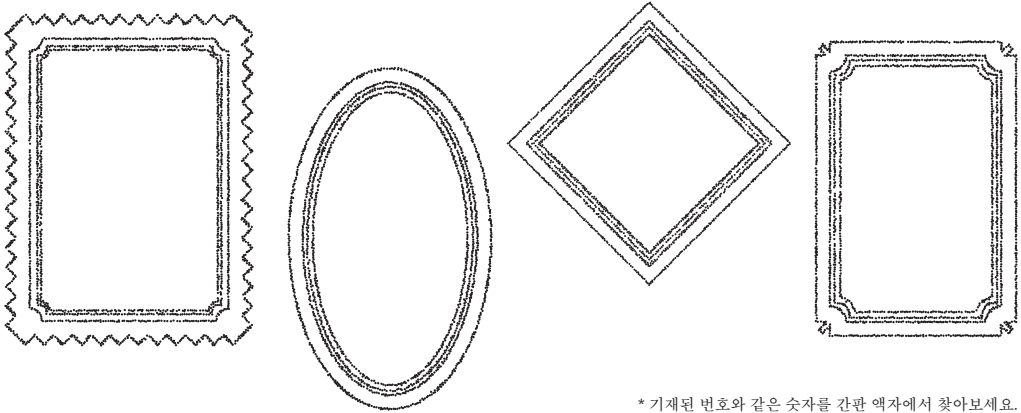
이것은 어떤 목소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성 중심의 세상에서 혼자 감춰왔거나 억누르던 여성의 목소리, 정상성 규범의 사회에서 다수가 무시하거나 지워냈던 성소수자의 목소리. 그 목소리들을 사진과 글로 전합니다.

박  
참  
새

'가상실재서점 모이 Virtual Bookstore moi'의  
북큐레이터, 작가, 시인 지망생. 그리고 가끔 팟캐스터.  
어쩌다 책이 없으면 뭔가가 다 잘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다.

7, 8, 9

세계 기록은 자아의 일부입니다. 어디까지가 기록이고 기록이 아닌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요.  
이 조각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조합한다면 지난 시간이 퍼즐처럼 맞춰질까요?  
아마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조각들이 없었다면, 지금 제가 아주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거나 함께 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종종 상상해 봅니다.



\* 기재된 번호와 같은 숫자를 간판 액자에서 찾아보세요.

황  
예  
지

1993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기록을 즐기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그들의 습관  
덕분에 자연스럽게 사진을 시작하게 되었다. 개인적인 서사를 수집하고  
개인이 품고 있는 감정, 관계, 신체를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

10

저는 흑백 암실에서 처음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밀착 인화를 하고 크게 뿔을 사진을 고르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가 찍은 사진들, 거기에 담긴 사람들과  
연속성을 확인하는 걸 좋아했어요.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거든요.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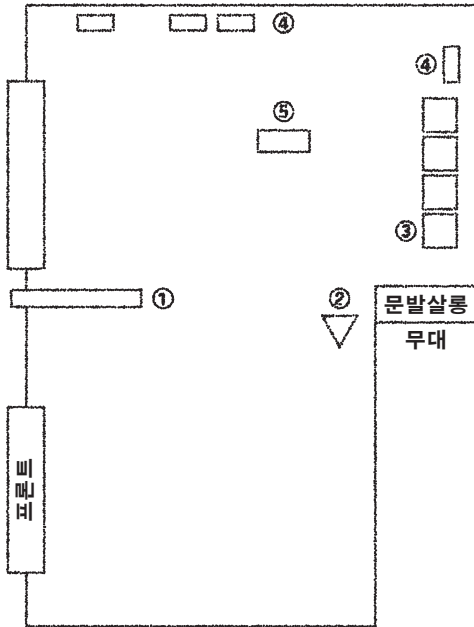
사진과 저는 동행해요. 사진기에 타이머를 맞추고  
카메라 앞을 제가 차지합니다. 짓고 싶은 표정을  
과감하게 지어 보아요. 때마다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이 사진들이 말을 해주곤 해요.

11

제가 셔터를 가장 경쾌하게 누르는 순간을 생각해  
보자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누릴 때예요.

13

사진을 제 언어처럼 사용하려면 빛과 어둠과 사이가  
좋아야 해요. 나의 오롯한 빛과 어둠.



#### ④ 작가의 기록

기록의 공간에서 네 명의 기록자는 어떤 기록을 이어왔을까요? 긴 편지지 같은 행잉 실크에 기록자들의 기록을 담았습니다. 앞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천천히 감상하세요.

#### ① <기록에게> 입구

이번 전시 내내 여러분과 함께할 네 명의 '기록자', 문보영 시인, 박참새 작가, 박지수 편집장, 황예지 사진가의 기록물을 이곳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살피며 여러분 각자의 기록을 떠올려보세요. 이번 전시가 언젠가 남겨둔 과거의 기록을 떠올리게 하고, 다양한 방식의 기록을 제안하며, 앞으로 기록을 지속하고 시도하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 ② <기록에게> 소개

<기록에게> 입구에 전시된 기록물에 대한 기록자의 설명과 네 명의 기록자를 소개하는 글이 담긴 리플릿을 가져가세요.

#### ③ 작가의 책상

기록자 네 명의 '기록 공간-책상'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기록자가 실제로 기록에 사용하는 물건과 기록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기록 공간을 둘러보며 기록자가 여러분께 보내는 편지를 받아보세요.

#### ⑤ 부치지 못한 편지

편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전시장을 나가기 전, 이 공간에서 편지를 쓰고 봉투에 담아보세요. 이곳에서 쓴 편지는 부치지 못한 편지가 됩니다. 우리는 당신의 부치지 못한 편지를 읽습니다.

### 2022 출판도시 인문학당 자체기획 전시·강연 <기록에게: Dear diary, picture, and letter >

'기록'을 조명하는 이번 전시와 강연 <기록에게: Dear diary, picture, and letter >에서는 관객이 타인의 기록물과 기록 도구를 살필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조성했다. 일상 안팎을 기록하는 '기록자' 네 명의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기록의 시도와 확장을 제안한다. 매일 일기를 쓰는 사람, 자주 기록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 사진으로 감정과 생각, 일상을 드러내는 사람, 타인의 기록-사진과 텍스트-을 모아 다시 한 권의 기록을 만드는 사람. 문보영 시인, 박참새 작가, 사진가 황예지, <보스토크> 박지수 편집장의 기록물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남겨진, 혹은 남게 될 '기록'에 담긴 이야기를 들여보자.

전시 기간 2022.09 - 2023.01  
 전시 장소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문발살롱  
 강연 일시 문보영 시인 2022.09.17.(토) 13:00-14:00  
 박참새 작가 2022.10.29.(토) 13:00-14:00  
 박지수 편집장 2022.11.19.(토) 13:00-14:00  
 황예지 사진가 2022.12.10.(토) 13:00-14:00  
 강연 신청 출판도시 인문학당 @inmunclub.org\_  
 SNS 개별 공지 및 구글폼 신청